



방재시험소 현황과 전망

宋柱翔

〈본협회 부설 방재시험소 책임연구원〉

1. 서언

근래 인구, 산업의 도시집중에 의하여 대도시지역에 공장, 고층 빌딩, 지하가등 복잡한 대형 건물이 증가하여 재해발생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규모가 크고 산업 활동의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대로 석유류, 가연성 가스류의 대량 저장시설 및 취급시설이 많아 재해가 발생하면 폭발, 화재, 위험물 유출등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에서 석유류, 도시 가스류등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화재등 재해요인이 많아지고 아파트, 다세대주택등 주거형태의 변화는 한 세대의 부주의가 이웃 세대에 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고도경제 성장 및 대도시화에 의한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로 재해요인이 다양화되었고 개인의 재해가 이웃,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범위도 넓어졌다.

따라서 국가나 개인은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를 미연

에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응급처치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본 방재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of Korea)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방재에 대한 과학적 시험연구를 통하여 재해발생의 예측 및 원인규명, 재해의 미연방지, 피해의 경감등 재해에 적극 대처하고자 설립되어 지난 4월 11일 개소식을 가졌으며, 여기에 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설립배경

1970년대초를 전후하여 대연각이나 시민회관 화재등 대형화재가 빈발, 인명과 재산의 많은 손실로 사회각계에서는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전문적인 화재 안전점검 기능을 가진 민간 화재 예방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해와 이해관계가 큰 손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사단법인 체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하여 특수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및 관계보험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으

며, 이리폭발참사등을 계기로 1978년 국무총리께서 재해와 이해관계가 많은 보험회사에서 시험연구기관을 설치하여 다양화된 재해에 대해 과학적인 대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1980년 12월 31일 재무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아 방재시험소가 태동되었다.

3. 현황

가. 부지 및 건물

당 시험소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9-1번지, 서울-충주간 산업도로변에 부지 3만 1천평을 확보하여 본관 및 연구동, 특수시험동, 방내화시험동등 총 2천 1백 38평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건축공사는 비교적 건설이 단순한 본관 및 연구동, 식당동은 83년 10월 기공하여 84년 9월 30일 1차 완공하고, 특수시험동 및 방내화시험동은 국내 최초의 스프링클러 종합화재 시험장치 설치 및 국내 최대규모의 방내화 가열로 설치등 설계와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85년 9월 말 2차로 준공하였다.

